

차별과 전복의 언어: 캐씨 박 흥의 시의 한국어 사용에 관한 연구*

윤 희 수

[국문초록]

이 연구는 캐씨 박 흥의 『몸 번역하기』를 중심으로 한국어가 사용되는 시들을 분석함으로써 이민자 시인에게 모국어 가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소수 언어로서의 한국어가 주류 사회에 어떻게 비추어지고, 시인이 어떻게 지배 언어와 소수 언어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표제시 「몸 번역하기」에서 한국어는 시인의 감각적 경험과 밀착되어 육체의 물질성을 표현하는 몸의 언어로 규정된다. 그렇지만 「동물원」에서 이질적인 동양인의 몸과 동일시된 한국어는 주류 사회에 의해 알아들을 수 없는 동물의 언어로 인식되고 인종 차별의 근거가 된다. 시인은 「통과 의례」에서 “콜라주 되고,” “쫓개진,” “파편들” 등의 표현을 통해 이중 언어의 구사자로서 소수 인종의 분열된 언어적 정체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한국어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을 바로잡기 위하여 시인은 「“바가지” 번역하기」에서 한국어에 생소한 독자들이 서로 다른 문맥 속에서 바가지의 의미를 추측하는 과정을 통해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 여성이 겪는 경험과 이질적인 타자의 언어를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바가지로 대표되는 한국어는 지배 언어의 독자들에게 소수 언어를 바라보는 자기중심적, 우월주의적 시각을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최음제」는 여성 화자를 앞세워 한국어로 지배 언어 사용자를 지배하고 조

* 이 논문은 2014학년도 부경대학교 연구년[II] 교수 지원 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D-2014-0699).

종하는 전복적 시도를 보여준다. 시인은 백인 남성을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한국어로 그의 육체를 지배하려는 여성 화자를 통하여 지배 언어와 소수 언어 사이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한다.

주제어: 캐시 박 흥, 한국어, 『몸 번역하기』, 차별, 전복

1.

한국계 미국 시인 캐시 박 흥(Cathy Park Hong, 1976~)의 첫 시집 『몸 번역하기』(*Translating Mo'um*, 이하 *TM*으로 약칭함)를 중심으로 그녀에게 한국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시인이 작품 속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한국어가 미국 내에서 소수 인종의 경험이나 정체성과 어떠한 상관성을 갖는지를 검토하려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의 결과로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이민자 작가에게 모국어에 갖는 의의를 조명할 수 있을 것이다.

캐시 박 흥은 1970년대 미국으로 이주한 한국인 부모로부터 태어난 이민 2세대로서 집에서는 한국어만 사용할 것을 고집하는 부모의 영향을 받아 초등학교에 입학해 서야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공용어인 영어와 달리 “공적인 용도에 부적합한” 사적인 언어인 한국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에 화를 내기도 했던 그녀에게 한국어는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언어로 비추어진다(Hong, “Slipping and Sliding” 15). 성장하는 동안 흥은 “집에서 한국어로 말하고 학교 운동장에서는 더듬거리는 영어로 다투면서” 영어와 한국어의 “커다란 차이”(yawning gap)를 경험한다(Hong, “An Interview” 1). 사적인 공간에서는 가족과 한국어로 소통하고 학교에서는 “스쿼시나 탁구처럼 숙달이 필요했던 까다롭고, 함정으로 가득 찬” 영어를 배우는 동안 겪은 성장기의 곤경은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indelible mark)을 남긴다(Hong, “How Words Fail” 1).

어린 시절 한국어의 사용이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동화되지 않고 있다는 징표”(a sign of not being assimilated)였음에도 불구하고 흥의 시에는 한국어, 정확하게는 로마자로 표기된 한국어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몸 번역하기』를 출간한 뒤에 『여성의 서평』(*The Women's Review of Books*)과 가진 대담에서 “당신은 표준적인 주석이나 자구적인 번역의 도움 없이 종종 한국어를 작품 속에 사용합니다. 독자들 대부분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떤 종류의 메시지—미학적이든 정치적이든, 어떤 것이든—를 전달하려는지 말해 줄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흥은 다음과 같이 답한다.

나는 번역의 어긋남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어를 영어로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국어와 연결된 가족이나 역사의 기억들을 영어로 쓴 시로 옮기는가 하는 것 말입니다. 나는 이 틈새(schisms)를 열어 기억이, 인간 경험을 시로 걸러내는 일이 종종 균열되고 불투명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두 개의 언어에 의해 양분되고 약화되는 경험들을 말합니다. 충분한 정보나 주석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시에는 (독자들이 시 읽기를 단념하게 만드는) 참조항이나 텍스트들 사이의 인유가 겹겹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즈라 파운드의 『칸토즈』(*Cantos*)를 보세요. 이 경우에 우리가 어떤 권위 있는 서구의 참고서를 구하거나 적어도 찾아볼 것을 요구받지요. 반면 서구의 것이 아닌 작품을 만나는 경우에 우리는 해설과 정리된 요약본을 기대합니다. 만일 한 편의 시가 많은 “외국의” 인유를 포함하고 있다면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말하던 선생님이나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은 누군가의 작품 속에 들어있는 윌러스 스티븐스의 플로리다 시편들에 대한 인유를 우리 모두가 이해할 것을 기대하셨지요. 내 생각에 이것은 특정한 종류의 독자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일인데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15)

가족이나 역사의 기억을 영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번역의 어긋남”(slippage in translation)이 발생할 수 있으며 두 언어 사이의 균열이 확인된다는 그녀의 지적은 한국어의 경험이 영어로 고스란히 투명하게 옮겨질 수 없고, 한국어로밖에 표현될 수 없는 고유한 이민자의 경험이 분명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흥에게 번역은 단지 하나의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국어와 관련된 경험을 영어를

매개체로 사용하여 시로 표현하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번역의 과정에서 고유한 경험이 “양분되고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그 경험을 고스란히 전달하기 위해 시 속에, 때로는 주석이나 해설이 뒤따르지 않는 한국어가 등장한다. 영어로 설명하거나 번역하지 않은 채 한국어를 사용하는 것은 흥의 말처럼 “특정한 독자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일”에서 탈피하는 것으로서, 외래의 이질적인 경험과 언어를 지배 언어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를 요구하는 서구 중심적 시각에 도전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어린 시절 가족들 틈에서 배웠을 뿐 체계적으로 습득되지 않은 탓에 흥에게 한국어는 말과 대상, 기표와 기의 사이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불투명한 언어이며 추상적 개념보다는 몸의 경험과 밀착된 구체적인 언어이다.²⁾ 시인은 『몸 번역하기』의 표제 시에 등장하는 몸(Mo'um)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몸은 실제로 육체를 뜻합니다. 나는 그 말에 관한 어린 시절의 연상들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한국어를 학교가 아닌 집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말의 정확한 정의를 알지 못했고 연상으로—흥미롭게도 병이었습니다—이해했습니다”라고 말한다. 그녀에게 몸으로 대표되는 한국어는 “내가 처음으로 몸으로 정의한 것은 열”(it is fever that I first defined as mo'um, *TM* 69)이라는 구절처럼 육체적 고통을 겪으면서 연상을 통해 체득된 언어인 것이다.

몸은 캐씨 박 흥을 포함한 아시아계 이민자의 가장 두드러진 인종적 표식이다. 미국 사회에서 동양인의 몸은 주류 인종 집단의 그것과 확연하게 구별되므로 가장 편리한 차별과 타자화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질적인 몸의 경험과 밀착된 한국어는 주류 사회로부터의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해묵은 제3세계의 냄새”(old third world smell, *TM* 13)가 배어있는 언어이다. 그러나 한국어는 소외와 차별의 언어이면서 그녀에게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의 유연성을 길러주는 긍정적인 언어이기도 하다. “내 생각에 두 가지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작가, 특히 시인에게 더욱 풍부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찍부터 모든 생각에는 한 가지 이상의 언어적 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사물을 기술할 수 있는 단어가 한 가지 이상이라는 사실을 배우면서 언어를 바라보는 방식에 유연성이 길러지는 것입니

다”(“Slipping and Sliding” 15)라는 홍의 말은 모국어와 영어로 동시에 생각하고 대상을 기술함으로써 시인은 풍부한 사고와 어휘를 확보할 수 있음을 지적한다. 이중 언어의 사용자로서 언어들의 “취약한 경계선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은 전통과, 영어, 형식, 장르의 예상되는 제약에 덜 의존하는 상황에서 당신에게 자유를 준다”(Hong, “An Interview” 4)는 그녀의 말처럼 한국어는 지배 언어인 영어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 시인의 상상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몸 번역하기』에 수록된 작품들에서 시인이 사용하는 한국어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어가 소수 인종 이민자 출신의 시인에게 갖는 의미와, 그녀의 이민자로서의 경험과 맺고 있는 관계를 조명할 것이다. 또한 미국 사회에서 한국어가 지배 언어인 영어에 종속되는 소수 언어에 그치지 않고 지배 문화가 이민자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제공하고, 나아가 한국어에 무지한 영어 구사자를 거꾸로 지배하는, 한국어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는 홍의 시들을 검토하려 한다. 그녀의 시를 통해 모국어와,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소수 인종 시인의 정체성과의 상관관계를 엿볼 수 있을 것이다.

2.

홍은 「몸 번역하기」(“Translating Mo’um”)에서 어린 시절의 경험과 기억을 토대로 한국어 어휘 “몸”이 갖는 다층적인 의미를 제시한다. 그녀가 “몸”의 의미를 처음으로 인식하게 된 것은 아파서 열이 나는 경험을 통해서이다.

엄마는 늘 내게 물어보셨지: *몸이 아파?*

그리고 내가 처음 몸으로 정의한 것은 열,

한기, 뜨거운 에너지—

엄마 어지러 (엄마, 어지러워)

열이 주는 선물은 학교를 하루 쉬는 것,
내 담요는 체온계, 온실의 산사태,

사과 먹어 (이 사과 먹어)

두꺼운 렌즈 같은 열을 식히려고,
엄마는 내게 달콤한 기하의 모양으로, 껍질 깠 사과를 주셨지.

나는 대답했다: *몸이 아파 엄마.*

열은 얼굴이 붉어지는 병리 현상,
매듭으로 묶인 열기, 붉게 감싸는 시야,

둔하게 살찐 혀, 뼈를 껴안은 근육의 고동.
나는 잠들어, 이 육신을 벗어나기만을 바랐다(.)

mother always asked me: *mo'umi a-p'a?*

And it is fever that I first defined as mo'um,
the chills, heated energy—

oma ujiruh (Mother, I am dizzy)

fever whose gift was a day off from school,
my blanket a thermostat, hothouse avalanche,

sagwa moguh (Eat this apple)

to cool off the thick-lensed heat,

mother offered me peeled fruit, sliced in sweet geometry

I answered: *Mo'umi appa oma.*

Fever is the pathology of blushing,

knotted heat, red shrouding sight,

the dull fat tongue, throb of bone hugging muscle.

All I wanted to do was sleep, to leave this body[.] (TM 69)

한국어 몸은 뜨거운 열기와 한기리는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경험을 포괄하며, “우리가 최초로 몸과 연관시키는 것은 언제나 아픔”(always the pain that we first associate with mo'um, TM 70)이라는 구절처럼 근육의 통증, 현기증 등의 육체적 고통과 맞닿아 있는 어휘이다. “둔하게 살찐 혀”의 이미지는 열이 나서 말조차 어눌해지는 고통스러운 상태를 가리키지만, 몸으로 대표되는, 그 대상을 선명하게 지정하지 않는 포괄적인 언어로서의 한국어를 은유한다고 볼 수 있다. 몸은 감각적 경험의 주체로서 “모피 / 음식 / 심장 / 욕정”(fur / food / heart / lust)과 관련된 것이지만 “이 가운데 어느 것도 아닌 것”(it is none of this)이라는 구절이 나타내듯이 한국어는 그 지시나 연상의 대상이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확대 가능한 언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시의 화자는 몸의 의미를 육체적 감각을 통해 재구성하면서 몸이 “주체의 육신의 물질성을 간직하는 어휘”(a word that bears the physicality of the subject's body)임을 시사한다(Lim 90). 몸을 감각적 경험과 아픔에 밀착시키는 시인의 관점은 “인간의 존재를 무형의 추상적 어휘들과 사상들에 국한하는 대신” 인간이 육체를 가졌으며 실제로 육체로 질병과 고통을 겪는다는 유물론적 사고(Welch 4)와 맞닿아 있다.

“그녀는 외국어와 외국인의 이질적 몸을 동일화한다”(She makes an equivalence between foreign language and the foreign body, 3)는 존 요(John Yau)의 지적처럼 몸과 밀착된, 지배 언어의 관점에서 외국어인 한국어는 개인적 고통을 넘어 한국인 이민자 집단에게 인종적 차별감과 수치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언어이기도 하다. 흥은 ‘동

물원」(“Zoo”)에서 한글의 가, 나, 다와 “생선 비린내 나는 자음”(The fishy consonant), “원숭이의 모음”(The monkey vowel), “짜지는 소리나 후두음 같은 / 이민자 언어”(The immigrant tongue / as shrill or guttural)를 병치시키면서 한국어를 “퇴화하기 이전의 꼬리를 지닌 말들”과 “후진적이라 불리는 호텐토트족의 혀 차는 소리”에 비유한다.

박쥐들의 섬광 같은 내 목소리의 서곡.
하이에나의 왈자지껄 소리와 원숭이의 오페라 대본.

물고기의 껍질, 깜박이지 않는 눈들,
공연은 동물의 가족을 지닌 외국인을 초대한다.

치경음 트, 치찰음 스, 그리고 성문 폐쇄음 흐

사: 시
까차: 까치
아이: 아이

퇴화하기 이전의 꼬리를 가진 말들. 금이 많이 간
역사의 흥부. 후진적이라 불리는 호텐토트 부족의 혀 차는 소리.

엄마와 아빠는 위생에 집착하셨다:
마치 몸에서 오래된 제3세계의 냄새를 지워버리려는 듯이.

Overture of my voice like the flash of bats.

The hyena babble and apish libretto.

Piscine skin, unblinking eyes.

Sideshow invites foreigner with the animal hide.

Alveolar *tt*, sibilant *ss*, and glottal *hh*

<i>shi:</i>	poem
<i>kkatchi:</i>	maggie
<i>ayi:</i>	child

Words with an atavistic tail. History's thorax considerably cracked. The Hottentot click called undeveloped.

Mother and Father obsessed with hygiene:

as if to rid themselves of their old third world smell. (*TM* 13)

제목과 달리 이 시는 어린 시절 호기심과 즐거움을 가져다준 동물원에서의 경험을 다루는 대신 이질적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미개한 동물의 언어로 바라보는 지배 언어의 시각을 꼬집는다. 이 시에서 지배적인 동물의 이미지는 이질적인 외국어를 구사하는 이민자를 비하하는 표현들이다. “그들이 내가 자면서 /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지껄인다고 말할 때 / 나는 한 편의 한국시와, 엄마와 나눴던 대화를 꿈꾸었다”(I dreamed a Korean verse, a past conversation / with Mother when they said I was blathering unintelligibly / in my sleep, *TM* 13)는 구절이 가리키듯이 한국어는 지배 언어의 관점에서는 동물원에 갇힌 동물들이 내는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로 인식되는 것이다. 그녀의 부모가 몸에서 제3세계의 냄새를 지워버리려 한다는 것은 한국어를 결국 이민자의 이질적인 몸과 하나로 보고 타자화의 근거로 삼는 지배 집단의 인종 차별적 시각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개코 원숭이의 얼굴을 한 병어리 소녀”(The mute girl with the baboon's face)는 부모가 집에서 한국어만을 고집한 탓에 영어를 배우지 않아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어린 시절의 화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동양인을 원숭이로 비하하는 또 하나의 인종 차별적 표현이다. 시인에게 한국어는 몸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인종적 정체성을 구성하는, 지워버릴 수 없는 부분이다.

이질적인 한국어를 사용하며 다른 몸을 지닌 화자의 또 하나의 성장기의 체험을 다

문 작품 「통과 의례」(“Rite of Passage”)는 온전한 백인 여성의 몸과 달리 조각들을 이어붙인 콜라주처럼 분열된 화자의 몸과, 양분된 그녀의 언어적 정체성을 드러낸다.

백인 여자들이 가슴 위로 셔닐 옷을 끌어 올리는
트인 탈의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나는 묘하게 콜라주가 된 느낌: 팔꿈치에서 코까지, 정강이에서 눈까지,
목에서 가슴까지, 이마에서 발가락까지

내가 추파를 던질 때는 대리석이 쪼개져
마치 양서류의 알처럼 내 입에서 쏟아져 나왔다.

Childhood was spent in an open dressing room where
white women pulled chenille over their breasts and

I felt oddly collaged; elbow to nose, shin to eye,
neck to breast, brow to toe

When I flirted, marbles slivered out of my mouth
like amphibious eggs. (TM 17)

화자가 두 개의 언어를 구사하면서 경험이 “양분되고 약화되는” 과정을 겪듯이 이질적인 한국어와 밀착된 그녀의 이질적인 몸은 온전한 백인 여성의 몸과 달리 이어붙인 조각들처럼 분열되고 콜라주 된 “괴짜의 파편들”(Fragments of freaks)로 비추어진다. 쪼개져 “양서류의 알”처럼 입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녀의 말은 물과 육지에 동시에 서식하는 양서류와 같이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화자의 언어적 정체성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동물원」에서 열등한 동물의 언어에 비유되었던 한국어가 불쾌감을 주는 언어일 수 있음을 암시한다. “행운의 과자가 쪼개져 하나의 언어가 굴러 나왔다. / 그 모르스 부호를 흔들어댔지만 아무도 몰랐다”(a fortune cookie cracked and a tongue

rolled out. / Wagged the Morse code but no one knew it, *TM 17*)는 구절이 나타내듯이 화자가 구사하는 한국어는 “모르스 부호”처럼 해독하기 어려운 이질적인 언어로 인식됨으로써 콜라주에 비유된 그녀의 몸과 함께 지배 문화에 의한 타자화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시인은 “collaged,” “cracked,” “fragments” 등의 표현을 통해 이중 언어의 구사자로서 소수 인종의 분열된 언어적 정체성을 암시한다.

흥은 또한 그녀의 언어적 정체성의 중요한 축을 구성하는 한국어가 주류 문화에 의해 탈영토화되고 전유되는 상황을 지적한다.

여봐요 섹시, 미군들이 한국인 술집 여자들을
부르며, 섹시를 ‘섹시’로 발음했다

섹시는 정숙한 여성,
결혼할 자격을 가진 여성을 의미했음에도

*Hey saekshi, the American GIs cried to the Korean
barmaids, pronouncing saekshi ‘sexy’*

*though saekshi meant respectable woman,
a woman eligible for marriage. (TM 17)*

“정숙한 여성”을 가리키는 한국어 “섹시”는 “sexy”와 발음상의 유사성 때문에 본래의 뜻에서 이탈하여 주류 문화에 의해 저속한 의미를 부여받는다. 이러한 상황을 통해 시인은 이질적인 한국 여성의 몸을 성적인 호기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섹시”라는 여성의 호칭에 담긴 문화적 고유성을 이해하고 존중하지 않는 주류 문화의 무지와 오만함을 꼬집는다. 시인은 이처럼 한국어가 탈영토화되어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고 재영토화되는 상황을 통하여 언어를 포함한 이질적인 문화를 하나의 하부 문화로 포섭하고 지배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주류 사회의 오만한 시각을 들추어내는 것이다.

흥은 낯선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려 시도하기 보다는 그것을 자기중심적으로 전유

하는 주류 문화를 향하여 타자를 타자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을 요구한다. 그녀는 「“바가지” 번역하기」(“Translating ‘Pagaji’”)에서 “모든 해당하는 빈칸을 “바가지”로 채워보세요”(please fill all appropriate blanks with “pagaji,” TM 21)라고 주문하면서, 한국어에 생소한 독자들이 그 과정에서 이민자 여성이 겪는 경험과 타자의 언어의 다양한 쓰임새와 의미를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새로운 나라에서, 그녀는 나폴레옹 풍의 상의를 입고
상자에 든 와인을 마셨다. 그녀는 상자에 든 와인과
글리세린 _____를

_____했지만
너무나 _____한 나머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일정한 키에 이르지 못하자, 그녀는
호르몬의 _____를 조사했다 비록

그들이 _____가 아시아 여성에게는
완벽하게 평균적이라 말했지만

그녀는 거북한 문화적 _____의 느낌이 들어서
약간의 제산제를 복용했다.

그녀는 _____하지 않고, 성큼성큼 걸었다.

In the new country, she wore a Napoleonic jacket
and drank box wine. She was _____ to
box wine and

glycerin _____ but was too embarrassed
to tell anyone.

When she did not reach a certain height, she
looked into hormonal _____ though

they said _____ was perfectly average for
Asian women

She felt a bloated sense of cultural _____
so she took some antacids.

She did not _____, she strode. (TM 21)

한국어 어휘 “바가지”의 뜻과 용도를 알지 못하는 독자들은 시인이 제시하는 문맥에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그 의미를 파악하려 하지만, 이 시에서 바가지의 정의는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다. 인용된 부분에서 사실 자구적이든 비유적이든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의 바가지가 들어갈 빈칸은 찾기 어렵다. 그렇지만 빈칸을 메꾸며 바가지의 뜻을 추측하는 동안 독자들은 정확한 의미는 모르더라도 그것이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명사, 동사, 형용사로의 품사적 전환이 가능한 단어임을 알아차림으로써, 한국어를 포함한 이민자의 언어를 동물의 언어에 비유된 단순하고 열등한 언어로 전형화하는 시각을 교정할 것을 요구받는다. 한편으로 “바가지”의 정의와 쓰임새를 찾는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통해 독자들은 이민자가 새로운 환경 속에서 영어로 인해 겪었을 소외감, 당혹감과 영어를 습득하기 위해 기울였을 노력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빈칸을 채우려 하는 동안 상자로 포장된 값싼 와인을 마시고, “새로운 나라에서” 평균에 못 미치는 “키를 만회하기 위해”(to make up for height)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이며, 문화적 차이로 인해 거부함을 겪는 “그녀”를 통해 독자들은 이민자의 힘든 삶을 들여다보게 된다. 지배 언어의 독자들은 낯선 한국어 어휘 “바가지”를 매개체로 이민자가 영어 때문에 겪는 당혹감과 소외감을 마찬가지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바가지의 의미에 가장 어울리는 문맥은 이 시의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다.

그 옛 나라에서, 나이든 여성은 수건을
 두른 채 _____ 속에 든 파를 씻었다. 그녀는
 머리 수건을 긁었다. 좋은 하루였다.

In the old country, the old woman wearing a towel over
 her head washed scallions in the _____. She
 scratched her head scarf. It was a good day. (TM 22)

“그 옛 나라에서” 음식 만들 준비를 하는 나이 든 여성을 묘사하는 문맥 속에서 비로소 “바가지”는 제자리를 찾는다. 시의 전반부에 등장하는 “그녀”가 “새로운 나라”에서 겪는 당혹과 긴장, 불안과 달리 “옛 나라”에서의 일상 속에서 나이든 여성은 “좋은 하루”를 보낸다. “바가지”가 제자리를 찾고 본래의 의미를 간직한 채 문장이 완성되는 공간이 “그 옛 나라”라는 것은 한국어는 결국 친숙한 한국적 경험 속에서 적절한 소통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배 언어인 영어의 구사자들에게 영어 어휘가 그들에게 익숙한 경험과 문맥 속에서 본래의 의미를 발현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는 한국어를 모르는 독자가 낯선 언어의 문맥 속에서 갈팡질팡 헤맸을 체험을 통해 거꾸로 영어의 늪에서 허덕이는 이민자의 처지를 이해할 것을 제안한다. 바가지로 대표되는 한국어는 지배 언어의 독자들에게 소수 언어를 바라보는 자기중심적, 우월주의적 시각을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홍은 「모든 최음제」(“All the Aphrodisiacs”)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어로 지배 언어 사용자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전복적 시도를 보여준다. 이 시에서 여성 화자는 성행위를 하는 동안 그녀의 입에서 “다른 언어가 새어 나오자”(a different language leaks out), 그녀의 한국말이 자신을 흥분시킨다고 말하는 백인 남성에게 그 말들을 영어로 옮겨 설명해주는 대신 그의 육체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화자는 한국어로 자신과 청자인 백인 남성 사이의 문화적, 언어적 차이를 확인하면서 지배 언어와 소수 언어 사이에 새로운 관계를 설정하려 시도한다.

집에서 쓰는 말들 ~~배고파~~ (*배고파*)
 ~~치워~~ (*치워*)
 ~~개새끼~~ (*개새끼*)

당신을 절정에 오르게 하는, 그 말들을 당신의 귀 속에 불어넣는다.

나중에 당신은 내게 그 말들의 번역을 부탁한다. 나는 비밀이라 말한다.

기억, 니은, 디근, 리을—글자 암송; 후두음 이중모음, 멋지다.

나를 흥분시키는 것들은 무엇인가: 낱말들—

한글: 여성 연애인, 시인, 창녀들이 처음으로 사용한 언어.

끈으로 도르래처럼 걸려, 전화선에 감긴 신발들의 모습,
 뭉툭한 언어의 성기.

Household phrases ~~pae-go-p'a~~ (*I am hungry*)
 ~~ch'i-wa~~ (*Clean up*)
 ~~kae sekki~~ (*Son of a dog*)

I breathe those words in your ear, which make you climax;

afterwards you ask me for their translations. I tell you it's a secret.

gijek niin tigit nril—the recitation of the alphabet; guttural diphthong, gorgeous.

What are the objects that turn me on: words—

han-gul: the language first used by female entertainers, poets, prostitutes.

The sight of shoes around telephone wires, pulleyed by their laces, the

blunt word cock. (TM 37)

「몸 번역하기」에서 화자의 육체적, 감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몸의 언어였던 한국어가 이 시에서는 청자의 육체적 쾌락을 이끌어내는 “멋진”(gorgeous) 도구가 된다. “내가 한국어로 말하면 흥분이 된다”(it turns you on when I speak Korean)는 남성에게 성행위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배고파,” “치위”와 같은 일상의 한국어 표현과 욕설을 그 뜻이 “비밀”이라며 번역하지 않은 채 그의 귀에 불어넣어 성적 흥분 상태를 높이는 화자는 한국어에 대한 남성의 무지를 이용하여 그를 오히려 육체적으로 조종하고 지배하는 것이다. 물론 시인은 여성 화자가 구사하는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에 성적으로 흥분하는 백인 남성을 등장시켜 제3세계의 여성 타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신비화하는 백인 남성을 의도적으로 조롱하고 희화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에 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주류 문화에 의해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이며 동물의 언어로 비하된, 지배 권력이 아닌 “여성 연예인”과 “창녀”들이 처음 사용했던 사회적 약자의 언어로서의 한국어가 탈영토화되어 백인 남성의 몸을 지배하는 위력을 지닌 언어로 탈바꿈하는 모습을 제시함으로써 시인이 소수 언어의 위상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화자가 구사하는 “한글”을 “뭉툭한 언어의 성기”에 비유함으로써 시인은 한글이 전통적으로 남성의 성기에 부여되어온 권력과 지배력에 버금가는 위력을 갖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시의 후반부에서 화자는 남성의 손을 기둥에 묶는 가학적인 행위에 빗대어 그녀가 구사하는 한국어의 위력을 강조한다.

흰 무명천의 띠, 평민의 색, 미덕의 색,
더럽혀질 수 있는 색—

내 손은 당신의 횡경막을 누르며, 당신의 고조된 목소리를 울타리에 가둔다.

입 사이에 맺힌 약간의 빗방울,

진통제, 차, 피를 뽑아내는 밀렵꾼—

당신의 손목을, 핏줄이 솟고 땀이 날 만큼
기둥에 단단히 묶는데 쓸 흰 무명천의 띠—

쉬쉬 소리를 내는 당신의 하얀 몸을 더럽힐 땀,

내 혀의 으쓱함, 명령의 으쓱함, *쉬~잇!*

Strips of white cotton, the color of the commoner, the color of virtue,
the color that can be sullied—

my hand pressed against your diaphragm, corralling your pitch,

a pinch of rain caught between mouths,

analgesic, tea. poachers drawing blood—

strips of white cotton I use to bind your wrist to post, tight
enough to swell vein, allow sweat—

sweat to sully the white of your sibilant body,

the shrug of my tongue, the shrug of command, *sssshht. (TM 38)*

화자는 “흰 무명천의 띠,” “평민의 색”의 표현으로 한글이 백의민족의 언어임을 상기 시킨다. “흰 무명천의 띠”로 남성의 손목을 기둥에 단단히 묶는 화자의 행위는 그가 한글에 의해 육체적으로 지배되고 종속된 처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화자의 손이 횡경막을 눌러 터져 나오려는 목소리와 신음이 억제되고 “*쉬~잇!*”하는 명령으로 침묵 당하는 남성은 육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화자에게 종속되어 있다. “pitch”

는 성적인 절정을 가리키면서 동시에 고조된 음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남성의 몸을 묘사하면서 치찰음을 가리키는 “sibilant”를 사용한 것은, 『몸 번역하기』에서 한글이 화자의 감각적 경험을 표현하는 몸의 언어인 것처럼 몸과 언어가 분리될 수 없음을 암시한다. 화자가 남성에게 “허락하는 땀”(allow sweat)으로 그의 흰 몸이 더러워질 수 있다는 것은 백인 남성의 흰 피부색에 부여된 권력과 지배력이 소수 언어인 한국어에 의해 훼손되고 약화되는 이 시의 상황을 간명하게 집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

문화적으로 흰색은 성공과 권력을 누려온 백인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 캐시 박흥의 두 번째 시집 『댄스 댄스 혁명』(*Dance Dance Revolution*)의 두 명의 화자 가운데 한 사람인 역사가(the Historian)는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수기에서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경제적 여유가 없어 치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분수식 치아 세척기”(Water Pik)를 하루에 세 번 사용해서 이를 희고 깨끗하게 보존하도록 충고했음을 회고한다(47). 이 시집의 중심 화자인 안내원(the Guide) 역시 특유의 사막 방언(Desert Creole)으로 그녀가 관광 안내원으로 일하는 사막 도시(the Desert)에서는 “모두가 최고의 치아를 가졌어요! 미제 콜게이트 치약보다도 / 더 반짝거린답니다”(Eberyone hab bes’ teef! Shinier den ‘Merikken / Colgates)라며 자랑한다. 그녀가 흰 치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가장 흰색을 가져야만 승리한다”(You triumph only wit de whitest, 30)라는 아버지의 충고 때문이다. 이처럼 두 화자의 아버지가 흰 치아를 사회적 성공의 전제조건으로 앞세우는 것은 “흰색과 권력 사이의 상관관계”(the correlation between whiteness and power, Welch 10)를 입증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최음제」의 화자가 백인 남성의 흰 피부가 더럽혀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소수 언어에 의해 백인의 주류 문화가 유지해온 권력이 도전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시에서 한국어는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 지배 언어와 소수 언어, 백인 남성과 동양의 이민자 여성을 둘러싼 서구의 인습적 서열을 역전시킬 수 있는 전복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3.

캐씨 박 흥의 『몸 번역하기』를 중심으로 한국어가 사용되는 시들을 분석하면서 이민자 시인에게 모국어에 갖는 의미를 살펴보고, 소수 언어로서의 한국어가 주류 사회에 어떻게 비추어지고, 시인이 어떻게 지배 언어와 소수 언어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표제시 「몸 번역하기」에서 한국어는 시인의 감각적 경험과 밀착되어 육체의 물질성을 표현하는 몸의 언어로 규정된다. 그렇지만 「동물원」에서 이질적인 동양인의 몸과 동일시된 한국어는 주류 사회에 의해 알아들을 수 없는 동물의 언어로 인식되고 인종 차별의 근거가 된다. 시인은 「통과 의례」에서 “콜라주 되고,” “쪼개진,” “파편들” 등의 표현을 통해 이중 언어의 구사자로서 소수 인종의 분열된 언어적 정체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한국어를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을 바로잡기 위하여 시인은 「“바가지” 번역하기」에서 한국어에 생소한 독자들이 서로 다른 문맥 속에서 바가지의 의미를 추측하는 과정을 통해 미국 사회에서 이민자 여성이 겪는 경험과 이질적인 타자의 언어를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바가지로 대표되는 한국어는 지배 언어의 독자들에게 소수 언어를 바라보는 자기중심적, 우월주의적 시각을 성찰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최음제」는 여성 화자를 앞세워 한국어로 지배 언어 사용자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전복적 시도를 보여준다. 시인은 백인 남성을 성적으로 흥분시키는 한국어로 그의 육체를 지배하려는 여성 화자를 통하여 지배 언어와 소수 언어 사이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모색한다.

캐씨 박 흥은 「이야기 시학」(“Fabula Poetics”)에서 세계화 시대에 다국어에 영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은 세계에 다국어의 사용이 시행되면서 서로 배타적인 언어들에서 나온 낱말들이 서로를 분해 조립하기 시작한다. 이 현상을 신제국주의의 오염된 내부 작용으로 치부해버리자. 그렇지만 미국의 경계선도 잠식당하고 있으며 우리의 영어는 바깥세상의 문화에 얻어맞고 있다. 카피라이터, 산문작가, 언론인, 블로거, 래퍼

와 티브이 작가들은 동음이의어로 말장난하고, 난도질하며, 인유들을 잔뜩 집어 넣고, 전형적으로 파운드에 영향받은 시인의 시보다 더욱 혼합된 표현 방식을 대량으로 만들어낸다. 문화적 교환(혹은 타락)의 배관이 활기차게 양방향의 속도를 높이고, 세계의 소리 풍경은 빠른 속도로 진화하고 있는 중이다. 세계가 축소되면서 말은 팽창한다. (35)

다국어 사용이 활성화되면서 영어를 비롯한 고유한 자국어의 영역이 침범받고 언어들 사이의 교환과 결합의 속도가 빨라지는 새로운 언어 환경에서 언어들 사이의 경계선은 갈수록 의미를 잃어간다. 언어의 경계선 상에 위치한 이민자 작가 캐시 박 흥 역시 그 경계선을 넘나들면서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다. 앞에서 분석한 시들에서 한국어가 사용되고 있는 상황은, 특히 「모든 최음제」의 상황은 소수 언어가 영어라는 지배 언어 속으로 침투하여 새로운 언어 환경이 만들어지고 두 언어 사이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되는 현재의 상황을 빗대고 있는지도 모른다. 『몸 번역하기』에서 소수 언어인 한국어의 가능성을 제시한 데 이어 그녀는 두 번째 시집 『댄스 댄스 혁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어가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되는 혼합 언어인 사막 방언을 통해 수직적 언어의 위계질서에서 이탈한 다양한 언어들 이 수평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의미망을 형성하는 혼종 언어의 가능성을 제시한다.⁴⁾ 결과적으로 이 연구에서 살펴본 『몸 번역하기』의 시편들은 혼종 언어의 가능성을 모색하려는 시인의 의미 있는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Notes

- 1) 『몸 번역하기』에 수록된 시 「날개 4」(“Wing 4”)에서처럼 흥에게 영어는 “의사당의 동음어가 수도”(The homonym of capitol is capital)이고 “비가 통치이고 꼬빠”(rain is reign is rein), “인용이 광경이고 자리”(cite is sight is site, TM 64)가 되는 혼란스러운 언어로 인식된다.
- 2) 흥은 「양성의 대명사」(“Androgynous Pronoun,” TM 57)에서 때로는 한국어를 영어로 그대로의 의미로 번역하지만 때로는 사전적인 정의가 아닌 경험과 연상을 통해 양자의 관계를 제시하기도 한다. “(오락) 놀이”(o-rak) play), “(코) 나는 아버지의 코를 물려받았다”(ko) I inherited my father’s nose), “(원하다) 원하대로 받음됨”(want) pronounced won-ha-da)이 전자의 예라면, “(밧다) 울렁거리는 속”(mip’ta) rattling

stomach), “(그녀) 병사의 겨드랑이”(kumyun) a soldier’s armpits)는 후자의 사례이다. “땀다”를 상응하는 영어 어휘 hate 대신 “울렁거리는 속”으로 표현하고 “그녀”를 욕설 대신 불쾌감을 주는 “병사의 겨드랑이”에 대칭 시킨 것은 시인에게 한국어가 추상적 개념보다는 몸의 감각적 경험과 밀착된 언어임을 가리킨다.

- 3) 임태연은 「몸 (육체)의 소리로서의 시적 언어: 들뢰즈의 ‘소수 문학’으로 캐시 박 홍의 시 읽기」(Poetic Language as a Sounding *Mo’um* (Body): Reading Cathy Park Hong’s Poems as Deleuze’s ‘Minor Literature’)에서 “흰 무명천의 띠”가 백의민족과 연관되어 있지만 그 흰 색이 “더럽혀질 수 있는 색”이라는 시 구절을 토대로 한국인이 더 이상 동질적인 민족이 아님을 나타낸다고 해석한다(91). 이러한 해석을 확대해 본다면, “평민의 색”이며 화류계의 여성을 포함하여 사회적 약자들이 사용하던 한글과 연관된 흰 색의 띠가 백인 남성 화자의 흰 손목을 묶어 그의 흰 몸을 지배하고 그 몸과 함께 더럽혀질 수 있다는 것은 소수 언어인 한글이 지배 언어 속으로 침투하여 궁극적으로 두 개의 언어가 혼성화될 수 있음을, 그 결과로 지배 언어의 지배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4) 사막 방언의 성격과 의의에 대해서는 윤희수의 「유목민의 혁명: 캐시 박 홍의 『댄스 댄스 혁명』의 들뢰즈적 읽기」 83-90을 참고할 것.

인 용 문 헌

- 윤희수. 「유목민의 혁명: 캐씨 박 홍의 『댄스 댄스 혁명』의 들뢰즈적 읽기」. 『현대영미시연구』 24.2 (2018): 79-109.
- Hong, Cathy Park. *Dance Dance Revolution: Poems*. New York: Norton, 2007. Print.
- _____. “Fabula Poetics.” *American Letters and Commentary* 17 (2005): 35-38. Print.
- _____. “How Words Fail.” *Poetry Foundation*. 31 July 2006. Web. 6 August 2018.
- _____. “An Interview with Cathy Park Hong.” By Joshua Kryah. *Poets & Writers*. 11 July 2007. Web. 31 July 2018.
- _____. “Slipping and Sliding.” *The Women’s Review of Books* 19 (2002): 10-11, 15. Print.
- _____. *Translating Mo’um*. New York: Hanging Loose, 2002. Print.
- Lim, Tae Yun. “Poetic Language as a Sounding *Mo’um* (Body): Reading Cathy Park Hong’s Poems as Deleuze’s ‘Minor Literature.’” *Arizona Quarterly* 73.2 (2017): 83-101. Print.
- Welch, Tana Jean. “Language, Matter, Movement.” *Community Boundaries and Border Crossings: Critical Essays on Ethnic Women Writers*. Ed. Kristen Lillvis, Robert Miltner, and Molly Fuller. New York: Lexington Books, 2017. 3-24. Print.
- Yau, John. “At Play in the Fields of Language: The Poetry of Cathy Park Hong (Part One).” *Hyperallergic*. 1 December 2012. Web. 20 April 2018.

Abstract

The Language of Discrimination and Subversion: A Study of the Korean Language in Cathy Park Hong's *Translating Mo'um*

Heesoo Yo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plores what the Korean language means for Cathy Park Hong, a second generation Korean-American poet, and how it is accepted by the dominant culture, and how she attempts to establish a new relationship between major language and minor language by analyzing the poems of her first collection, *Translating Mo'um*.

In "Translating Mo'um," the title poem of the collection, Hong defines Korean as the language closely associated with physical experiences caused by pain. In "Zoo," however, the Korean language equivalent to the foreign body is compared to an unintelligible animal language which discriminates and alienates its speakers. The poet implies that bilingual subjects may experience the sense of divided identity by using "collaged," "cracked," and "fragments" in "Rite of Passage."

In "Translating 'Pagaji,'" while readers rely on the poet's contextual clues within each line to catch the proper meaning of "Pagaji," they are expected to experience the same embarrassment of immigrants who face the multiple meanings of English vocabulary in different contexts. This experience leads readers to reconsider their self-centered supremacist view on foreign languages. "All Aphrodisiacs" shows the white male lover dominated by the female speaker who turns him on with untranslated Korean words. In this poem, Hong tries to subvert the conventional hierarchy between major language and minor language.

Key Words: Cathy Park Hong, Korean, *Translating Mo'um*, discrimination, subversion

논문접수일: 2019.01.15

심사완료일: 2019.02.03

게재확정일: 2019.02.11

이름: 윤희수 (교수)

소속: 부경대학교

이메일: yoonhs@pknu.ac.kr